



환자가 넘쳐 북도에도 침상을 마련한 하얼빈 시립아동병원의 외과병동. 왼쪽 사진은 심장병에 걸린 양자신(楊佳欣·7개월·여)을 안고 있는 김용진 서울대 교수. 양자신은 25일 4시간에 걸쳐 심장수술을 받았다. 하얼빈=김민상 기자

# “쭉이, 쭉이... 한국 의사 무료 시술에 감동”

(최고)

## 하얼빈서 인술 펼친 한국 의료진

“쭉이하오(最好, 최고예요).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지역 다싱안링(大興安嶺)에 사는 위평허(于風河·66)는 지난달 24일 기사를 만나자 “한국인 의사가 손자의 목숨을 살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자 위보(于博·7)는 김용진(57) 서울대 흉부외과 교수가 이끄는 한국인 의료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위보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심장병 수술을 무료로 받아 삶을 되찾았다. 그 전만 해도 살 가치가 없었다. 심장 이상으로 입술과 손끝이 새파래졌고, 주변에선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위평허는 이날 손자의 심장을 진찰하기 위해 기자 등으로 17시간을 달려 김 교수팀이 의료봉사하고 있던 헤이

룽장(黑龍江)성 하얼빈 시립아동병원에 도착했다. 위보를 살펴본 제현곤(37) 서울대 전문의는 “많이 좋아졌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혈액이 굳는 것을 막으려면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던 위평허 일가는 위보의 심장병 때문에 흠어져 살고 있다. 부모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남보(寧波)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위평허는 “그래도 위보가 살아나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와 제 전문의는 지난달 22~27일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등과 함께 하얼빈 시립아동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중국 어린이 6

명의 심장병 수술을 했다. 24일에는 생후 19개월인 바이쑤엔칭(白軒成) 김 교수의 집도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김 교수는 국내에 새로운 수술법을 도입해 치료가 어렵던 심장병을 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국 농촌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그래서 중국 농촌 가정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강한 나라의 힘은 순수한 봉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귀국 후 가까운 나라부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6년 미국 하버드대 부속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1년부터 중국에서 500여 명의 중국 어린이에게 무료 심장병 수술을 해왔다. 2004년부터 김 교수와 인연을 맺은 리화이닝(李懷寧) 하얼빈 시립아동병원 부원장은 그를 ‘사부(師父)’로 모신다. 그는 “스승 이상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다음

날 수술할 어린이의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묻자 리 부원장은 식사 도중에 알아보러 갈 정도였다.

김 교수의 의료봉사활동에 한·중문화협회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협회는 2006년부터 한국 정부·기업으로부터 매년 3억원 정도의 기금을 모아 중국 병원에 심장병 수술 비용으로 전달했다. 30명 정도의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영일 총재는 “한국 의사들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보다 수술 비용을 절감하고, 수술 기술까지 전달할 수 있다”며 “한국인 의사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한국에 감사하는 중국인이 많아졌고, 양국 국민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얼빈=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 “가까운 나라부터 도와야” 심장병 어린이 500명 수술 중국 의사에 기술 전수도

고친 아동 심장병 수술의 권위자다. 보쑤엔칭의 아버지 바이칭귀(白靑國·26·농업)는 “한국인 의사들이 무료로 수술해 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중국에서 아동 심장병 수술을 하기 위해선 5만 위안(약 1000만원)이 든

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국 농촌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그래서 중국 농촌 가정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강한 나라의 힘은 순수한 봉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귀국 후 가까운 나라부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6년 미국 하버드대 부속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1년부터 중국에서 500여 명의 중국 어린이에게 무료 심장병 수술을 해왔다. 2004년부터 김 교수와 인연을 맺은 리화이닝(李懷寧) 하얼빈 시립아동병원 부원장은 그를 ‘사부(師父)’로 모신다. 그는 “스승 이상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다음

# 친선 농구 한·중 대학생 “협한·반중 땀으로 날려”

양국 학생 섞여서 팀 구성 “우정이 먼저” 경품 양보도

“환추(傅球·패스해 줘)! 부야오진(不要緊·서두르지 마).” 하얼빈(海濱)체육관 내 농구장. 이른 아침부터 “제1회 한·중 대학생 친선 농구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베이징의 베이징·청화(淸華)·런민(人民)·베이징사범·수도사범·미디어(傳媒)·외국어·이공대학 등 8개 대학 학생들이 출전한 순수 친선 농구대회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일각에서 불거진 양국 간 불편한 분위기를 한·중의 젊은 대학생들이 씻어내고 서로를 더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첫 대회가기 때문이다.

이날 참가팀의 구성 방식은 독특했다. 흔히 보는 한국팀과 중국팀의 대결 구도가 아니었다. 대학별로 한·중 대학생들이 한 팀을 구성했다. 경기하는 선수 5명도 양국 학생들이 2~3명씩 출전토록 배분했다. 오전 9시30분, 선수단 입장식에 이어 선수 대표의 선서가 있었다. 양국 대학생 대표가 각각 “우정이 먼저, 성적은 그 다음”이라고 엄숙하게 선서했다. 이어 8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에 들어갔다. 8개 대학에서 수십 명의 여대생이 즉석에서 모여 치어리더 역할을 하면서 경기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학생들은 각자의 국가를 응원하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학교 이겨라!”라고 소리쳤다.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가 쓰러지면 서로 일으켜세워 주고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 중간에 학생들은 재중국한국인회가 제공한 한식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공대 관리경제학과 3학년 자오젠(趙健)은 “한국 김치가 입에 맞는다”며 한국 친구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다.

이날 수도사범대팀이 우승, 미디어대학팀이 준우승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국경을 넘은 우정을 확인했다. 행운권에 당첨된 중국인 대학생이 즉석에서 같은 팀 한국인 대학생에게 상품을 양보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베이징 총한국학생회연합회’ 장준원(런민대 무역경제 4학년) 회장은 “함께 땀을 흘린 후엔 서로가 더 친해진다”고 말했다. 행사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청화대 김혜영(여·소프트웨어과 3학년)씨는 “한국과 중국이 경쟁팀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구성한 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런민대 신문학과 2학년생인 리첸청(李前成)은 “두 나라 대학생이 국가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해마다 볼·가을로 이런 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대학생 축구대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후원한 주중 한국총영사관의 전태동 총영사는 “백 마디 말보다 젊은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스킨십을 나누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zhang@joongang.co.kr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대학생 농구대회.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 “심장병은 불치병이라 봤는데... 한국 의료진 도움 정말 고마워”



딩펑수 하얼빈 아동병원장

“한국인 의사들의 도움으로 하얼빈 시립 아동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 시립 아동병원의 딩펑수(丁鳳姝·46·여·사진)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의사의 도움으로 우리 병원이 헤이룽장 성뿐 아니라 중국 전체에서도 손꼽히

는 현대식 병원으로 거듭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8일 10층 건물에 400여 병상을 갖춘 병원 건물을 추가로 짓고 증축식을 열었다. 병원 안에는 컴퓨터 단층촬영(CT)·자기공명 촬영장치(MRI)와 같은 첨단 장비와 전자식 대기실, 에스컬레이터를 갖췄다. 중국인인 딩 원장은 “2002년부터 한국인 의사들이 1년에 5~6차례 방

문해 병원의 외과 시설과 의사들의 역할, 진료 순서와 같은 의료 체계를 알려 준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는 자녀를 한 명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병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딩 원장은 “한국인 의사들이 하얼빈 아동병원을 방문하기 전만 해도 심장병은 불치병이었다”며 “한국 의사들의

교육으로 이제는 중국인 의사들도 환자 100명 중 60~70명을 수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얼빈 시립 아동병원 심폐 순환기를 사지만 개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거듭 실패하자 기계를 참고 속 에 처방이뒤야 했다. 그러다 2002년 한국 의사들이 방문해 사용 방법 등을 알려준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다.

아동 심장수술은 성인 심장수술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세밀한 혈관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고 한다. 딩 원장은 “중국은 환자와 의사가 많아 아동 심장병 수술 기술이 계속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베이징과 상하이 같이 발전된 지역으로 가

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인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얼빈시에는 이 병원과 함께 의과대학병원, 제일병원 등 3개의 현대식 병원이 있다. 이 중 아동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과 수술 설비를 갖춘 곳은 이 병원뿐이다. 하루 진료 환자는 2000여 명, 병상 450개, 의료진 700여 명이다. 크기는 한국의 웬만한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병실이 모자라 추운 북도에 병상을 깔아놓아야 하는 형편이다. 딩 원장 등 하얼빈 아동병원 의료진은 한국인 의사들이 전해주는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는 데 열심이었다. 하얼빈=김민상 기자

**면역력 증진은 물론 힘찬활력**  
· 자양강장 · 원기회복 · 건강증진 등

**건강과 젊음을**  
**선삼<sup>®</sup>이 도와드립니다.**

선삼<sup>®</sup>의 주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k1, Rg3, Rg5 와 이의 Rk2, Rk3, Rs4, Rs5, Rs6, Rs7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선삼<sup>®</sup>은 서울대학교 부속 연구소의 연구개발 결과입니다.

- 모양은 모방할 수 있어도 품질과 기능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 광고심의필증을 받지 않은 광고는 과장광고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자인 박사님과 통화 또는 면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표창 수상!**  
- 선삼<sup>®</sup> 개발사제로 2006년 발명의 날 -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후원사 및 공식지정제품 선정

심(蔘)중의 심(蔘)! 건강을 위한 혁명의 선삼<sup>®</sup>!

**명품 선삼정 仙蔘精<sup>®</sup>**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신제품 선삼정 주니어 골드**

**■ 국내의 11개 발명특허 획득!**

- 국내특허 : 한국등록 192678, 228510
- 국제특허 : 미국등록 5776460,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중국, 일본, 대만 등 9개

**■ ISO 14001, 9001 인증 획득!**

- 2004 장영실 과학문화상 발명대상 수상!
- 2004 신자식인 선정! (주)진생사이언스 대표이사 - 선삼<sup>®</sup> 개발로
- 2004 무역의 날 선삼<sup>®</sup> 정 수출 첫 해 -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7 한국 언론인 연합회 선정 - 한국 최고 브랜드 종합대상 수상!
- 2008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의약개발산업 대상 수상!

선삼<sup>®</sup>은 진생사이언스의 등록상표입니다.  
\* 본 제품은 재용제투과 고시여 의거 재용제투과 - 환물 및 소비자의 피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 심취 양면 및 주의사항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통기한 확인하여 가급적 빨리 섭취하십시오. \* 유통기한 후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KBS, MBC, YTN, 선삼정 CF 방영

**선삼연구단** (박정일, 박일호, 박민기, 조순연, 이양범, 이용재)

선삼<sup>®</sup> 개발 총괄 책임자 : 박만기 박사 약력

- (전) 서울대학교 교수
- (현)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부원장
-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